

미술관 경계 허물고 소통 백남준과 닮았네

▶ 백남준 작 'TV 정원'



이제는 문화시민

선진예술교육현장 탐방

〈10〉 백남준아트센터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그때'의 감동은 현재 진행형이다. 미국 워싱턴 국립미술관에서 백남준 선생(1932~2006)의 추모전을 관람하다니. 지난 2011년 4월 미국 출장길에 '정보'를 들고 짐을 내 들른 백남준 특별전 '하나의 촛불, 그리고 촛불 영상' (One Candle, Candle Projection)은 세계적인 거장을 가리는 한정된 공간이었다. 전시장은 어두운 조명과 적막감이 어우러져 마치 백남준 선생을 추모하는 사원을 연상케 했다.

무엇보다 백남준의 기행(奇行)과 파격을 보여주는 다큐멘터리에서부터 1960년~2000년대 초반에 제작된 작품들을 동시에 볼 수 있어 뜻깊었다. 전시에는 '붉은손'(Red Hand·1967년 작), '달걀 세계'(Three Eggs·1975~1982년), '손을 펴고 서 있는 부처'(Standing Buddha with Outstretched Hand·2005년) 등 20개의 작품이 출품됐다.

특히 세계적인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재조명 작업이 활발하지 않았던 국내와 달리 미국의 유명미술관이 그의 사후 5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전시라는 사실만으로 뿌듯했다. 워싱턴 국립미술관을 나오면서 언제 기회가 되면 경기도 용인의 백남준 아트센터를 둘러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토록 가보고 싶었던 백남준 아트센터를 이번 시리즈를 통해 최근 방문할 기회를 가졌다.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경기도립미술관 인근에 자리한 백남준 아트센터는 세계적인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 선생의 작품을 전시하고 미디어를 연구하기 위해 지난 2008년 10월 문을 열었다. 미디어 아트 전문기관으로는 세계에서 유일하다. 2001년 생전 백남준 선생과 경기도가 아트센터 건립을 논의한 계기가 된 이 곳은 작가가 바랐던 '백남준이 오래 사는 집'을 구현하기 위해 그의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그랜드 피아노의 형태와 영문 이름을 성(姓)인 'Park'의 첫 글자인 'P'자를 형상화 했다. 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 5천605㎡ 규모로 내부에 상설 및 기획전시실, 비디오 보관실, 다목적실,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아트센터에 들어서면 그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인 'TV 정원'(1974)이 반갑게 방문객을 맞는다. 열대 숲의 원시적 생명력과 비디오 판타지의 리듬이 주파수를 맞추면서 관람객에게 생명 박동을 느끼게 하는 작품이다. TV 모니터에서 흘러나오는 '글로벌 그루브'는 음악과 춤의 힘을 상상의 비디오 풍경으로 보여준다.

'TV비디오'(일명 비디오 물고기·1975년·2438x147x99cm)는 24개의 19인치 모니터와 15개의 수족관으로 구성된 비디오 설치작품. 수족관 안에 담긴



백남준 아트센터를 찾은 초등학교생들이 에듀케이터로부터 수족관 안의 물고기와 비디오 영상속의 물고기가 중첩돼 독특한 풍경을 연출하는 '비디오 물고기'(1975년 작)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백남준 아트센터 제공>

시간·공간·소통 키워드

학생·교사·학교 연계 강좌 다채

'큐레이터 토크'·'NJP 살롱' 등

통합적·전인적 예술교육 특화

'백남준 세계' 대중 이해 확장

살아있는 물고기가 그 뒤에서 어른거리는 비디오 영상 속의 물고기와 함께 중첩돼 독특한 풍경을 연출한다.

백남준 아트센터는 백남준의 예술적 궤적이 살아 있는 비디오 설치와 드로잉, 관련 작가들의 작품 248점, 비디오 아카이브 자료 2285점 등을 소장, 그의 예술세계에 대한 연구와 전시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 같은 백남준 아트센터의 지향점은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생생하게 구현된다. 특히 미디어에 대한 통찰, 기존 교육체제에 대한 재고(再考), 미술관의 벽을 허무는 프로그램 등을 기치로 통합적이고 전인적인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시대의 사상가이자 교육자, 미래를 사유하는 선구자로서 백남준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확장시키기 위해서다.

백남준 추모 10주기인 올해 아트센터는 '시간', '공간', '소통'을 키워드로 초·중·고등학생 대상 강좌, 초·중·고 교사 및 예술강사 대상 초청 워크숍

등 학교와 연계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10주기 특별전 '다중시간'과 연계한 '큐레이터 토크'는 전시기획자와 프로그램 참여자가 함께 매월 한차례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현대미술과 관계의 미학을 주제로 한 'NJP 살롱'은 지난 2011년부터 백남준의 예술세계를 알리기 위해 매년 성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해온 문화예술강좌, 특히 10주기인 올해는 백남준과 동료들의 발자취를 짚어 보고 현대미술을 바라보는 시각을 넓히는 내용으로 꾸며져 좋은 반응을 얻었다.

'타임플레이·타임엑세스·소리느낌'은 초·중·고등학생들을 겨냥한 특화된 프로그램이다. 특히 '타임플레이'는 원초적 표현수단인 몸을 이용해 시간을 표현하고 시간에 대해 생각해보는 자리다. 또한 '타임엑세스'는 중·고등학생 단체(15~50명)를 대상으로 시간 개념인 24시를 벗어나 자신만의 시간을 규정하고, 조별로 다중시간을 구축하는 독특한 프로그램이다.

백남준 아트센터 홍보담당인 임하영씨는 "백남준 선생의 예술세계를 알리는 교육 프로그램이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원동력은 방대한 자료를 갖추고 있는 '백남준 라이브러리'라 할 수 있다"면서 "올 하반기에는 교사와 학생 단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연계 교육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용인=박진현 문화선임기자 jhpark@kwangju.co.kr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취재 지원으로 작성됐습니다.

제1회 광주비엔날레 '인포아트' 총감독

5월 희생자 위로한 '고인돌' 영구 전시

세계적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

세계적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사진)은 1984년 전세계에 생중계된 '굿모닝 미스터 오웰' 이전만 해도 국내에서는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한 작가였다. 남들이 하지 않는 미친 짓과 기행을 일삼는 전위예술가 정도로 막연히 알려졌을뿐이다.

그러나 당시 뉴욕과 파리, 베를린, 서울을 우주중계로 연결해 국내에 KBS TV로 그의 예술 세계가 쏟아지자 백남준은 한순간에 천재적 아티스트로 강한 이미지를 심었다.

백씨는 광주와도 인연이 깊다. 지난 95년 제1회 광주비엔날레의 특별전인 '인포아트'(정보 예술)의 총감독을 맡아 5·18 민주항쟁 희생자의 영혼을 고인돌로 소재로 한 비디오 설치작품 '고인돌'을 출품해 5월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기도 했다. 이 작품은 비엔날레관 현관에 영구 설치돼 있다.

당시 백씨와 함께 '인포아트'특별전을 기획한 큐레이터 김홍희(현 제6회 광주비엔날레 총감독)는 "백남준 선생은 전위적 공연예술과 첨단기술의 기계미학을 접목시켜 비디오 아트는 새로운 미디어 공연예술을 개척한 시간과 영



상의 미술사다"라고 회고했다.

1932년 7월20일 서울 서린동에서 태

창방직을 경영하던 백남승씨 막내 아들 로태어난 그는 경기 충고를 나와 일본 도쿄대에서 미학과 음악사, 미술사를 전공했으며 58년에는 독일에서 음악사를 공부한 뒤 전자음악에 심취하기도 했다.

그가 예술가로서 세상사람들에게 처음으로 선을 보인 것은 59년 독일에서였다. 프라이부르크대학에서 존 케이지를 만난 그는 '존 케이지에 보내는 헌장'라는 제목의 작품을 한 화랑에 전시했고 이를 지켜본 '플럭서스' 운동의 창시자 조셉 보이스는 후일 그의 예술세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세계적 명성을 구가한 그는 93년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대상의 영예를 차지한 바 있으며 독일 '카피탈'지가 선정한 현존최고 미술가 100명 중 5위에 오르기도 했다. /박진현 문화선임기자 jhpark@kwangju.co.kr

아름다운 추억이 머무는 곳

자연이 아름답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더 아름답습니다. 백양관광호텔로 오십시오.

Beautiful Baeg Yang Hotel

백양사 입구 **백양관광호텔**
Beautiful Baeg Yang Hotel

- 정원과 테라스가 아름다운 호텔
- 실내 결혼식장과 야외 결혼식장을 갖춘 호텔
- 출장 뷔페 전문 호텔 = 호텔의 식사업무
- 교회 행사 전문 호텔

하반기 직원모집
프린트 22~55세, 주방한모 (출퇴근 및 숙박가능)

http://www.baegyanghotel.co.kr/ **백양관광호텔** | 예약 및 문의 | 061-392-2114

자연과 인간 그리고 예술의 만남

◆ 대형 웨딩홀 준공

◆ 400석 대면회장 신축

- 대규모 기업행사(세미나/워크숍/기업연수)
- 결혼식/피로연/고회연
- 각종 모임(가족모임/동창모임/각종단체모임 등)

◆ 전객실을 편백으로 리모델링한 호텔